

박물관 전면 개편 아시아 도자문화 거점으로

지역 문화계, 올해 어떤 공연·전시 열리나

<7>국립광주박물관

신안해저유물 1만7천여점 내달까지 이관 완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전으로 지역과 소통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이 올해 세계의 다양한 도자문화를 소개하는 '세계 도자문화 특별전1-중국 자주요 박물관 명품'을 개최한다. 또 올해부터 전시실 등 대대적인 시설 개편에 들어간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광주박물관 중장기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위해 5가지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및 시설 개선이다. 박물관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오는 3월까지 국립광주박물관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를 실시한다. 박물관의 새로운 비전을 비롯해 핵심가치·목표 등과 함께 특성화, 네트워크 확대, 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 등이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연구 중간 점검 결과 '아시아 도자문화 아카이브관' 건립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250~300억 원을 계획 중이다. 이 아카이브관은 한국 도자 문화 재발견의 매개자이자 한국과 아시아 문화 교류의 장은 물론,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3년에 걸쳐 기존 전시실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함께 진행한다. 기획전시실을 1층으로 이전해 관람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안 해저 출토 도자기를 모은 도자실(가정)을 신설하며 선사시대부

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광주·전남지역의 역사·문화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물과 설비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설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서하에서 본촌산단으로 진입을 위한 우회전 시 상습정체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박물관 입구를 복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박물관 전면으로 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아시아 도자문화 실크로드 거점 구축을 위한 사업이 전개된다. 박물관은 세계적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도자기'와 지역의 주요 의제인 '아시아문화'를 융합한 '아시아 도자문화 실크로드의 거점'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신안 해저 발굴 유적을 계기로 박물관이 지어진 만큼, 그동안 박물관의 품을 떠나 있던 신안해저문화재 가운데 도자기 1만7,034점을 오는 2월 1일까지 이관 완료한다. 신안해저문화재는 2020년 신설되는 도자실에 공개해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기관과 소통하는 문이 되고자 한다.

김승희 관장은 "신창동 농경 유적 발굴이 시작되면서 박물관의 정체성이 신안에서 농경문화로 바뀌었다. 신안해저문화재는 대부분 중국의 도자이지만 아시아를 표방하고, 강진의 청자와 충효동 분청 사기 등 우리의 전통문화도 부각 시킬 것"이라며 중심축은 한국의 도자 문화임을 강조했다.



청자 사자 모양 연적.



신안선 출토 물고기 모양 연적.



철제은입사필통에 새겨진 물고기무늬 도안.



물고기무늬 분청사기 편병.

오는 4월에는 '세계 도자문화 특별전-중국 자주요박물관 명품'전을 개최한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 자긍심을 심어주는 '대한민국 100년, 역사를 바꾼 10 장면'을 실시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사건으로 민중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섰던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독립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6·25 전쟁,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 민주항쟁과 촛불 등을 중심으로 사건 발생 시기에 따라 주제별로 생동감 있는 사진과 관련 자료 10점씩을 공개할 예정이다.

9월에는 2019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맞춰 특별전 '문양' (가제)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과의 소통을 도모한다.

또, 박물관을 찾는 어린이 관람객들

을 위해 노후 된 어린이박물관 전면 개편에 나선다. 사용하는 사람의 성별·나이·장애·언어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설계를 토대로 어린이의 상상력과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유아, 청소년, 성인, 장애인, 군인, 외국인, 가족 등 연령과 계층에 들어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민의 예술적 감수성을 깨우는 국악 관련 문화행사를 새롭게 마련한다. 연 4회 박물관과 국악방송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악 공연 실험이 국악방송의 전파를 타고 전국에 울려 퍼질 예정이다. 기존에 해오던 계기별 문화행사(설·추석맞이 민속놀이 체험,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 그리기대회 등)나 주말 영화 상영, 연극·마술·클래식 공연 등 다양한 행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보람 기자



시민이 주는 전통문화대상 생김다

대동문화재단 올해 제정... 문화 나눔 실현

전통문화 4개 분야서 각각 5백만 원 시상

제1회 '대동전통문화대상'이 제정 실시된다. 사단법인 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은 장인의 길에 매진하면서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 하는데 기여한 공적이 큰 사람을 발굴해 '대동전통문화대상'을 제정하고 대상자 선정을 위해 공모에 들어간다.

이상은 1995년 창립 이래 지역민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역사와 문화유산,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대동문화재단이 문화 나눔을 실현하고자 계획한 프로젝트다.

지역에서 전통문화대상을 시상해 오고 있는 서암문화재단의 서암전통문화대상과 비교해 시민이 후원해 주는 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시상 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유산부, 미술부, 공연부, 특별상(한

우물상) 등 4개 분야다. ▲문화유산 부문은 유·무형문화재와 학술 분야 ▲미술부 부문은 수묵화, 서예, 공예, 건축, 조각 분야 ▲공연부 부문은 국악과 전통극 등이다.

특별상은 분상 3개 분야 외의 장르와 직업군에 매진하면서 전통적 가치를 구현하는 장인이나 전문가에게 주는 상이다. 대상에는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각 500만 원씩의 상금이 주어진다.

지원 자격은 문화유산, 미술, 공연 분야, 특별상 등 4개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와 창작발표 등으로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괄목할만한 공적이 인정된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방점이 찍힌다고 재단 관계자는 밝혔다.

조상열 대표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동문화재단이지만 그 후원을 이끌어 내는 대동문화 발전을 위

해 후원하는 문화 나눔에 목적이 있다"며 "갈수록 고유의 전통문화가 명맥을 잇기 힘든 열악한 환경에도 묵묵히 장인의 길에 매진하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분들을 격려하고, 그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자 본 상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개인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개인이 직접 신청하며, 추천을 받은 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접수기간은 3월 20일~4월 20일까지며, 제출서류 양식은 대동문화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

첫 시상식은 대동문화재단 창립기념식 날인 5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대동문화재단은 이번 전통문화대상이 대동문화 운영이사회와 시민의 후원 등 기부금을 모아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뜻깊은 문화 나눔에 동참할 시민을 기다리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동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사무처(062-461-15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수 기자

본사 주최 김대중 정신계승 글짓기 대회 수상작

대통령이 꿈꾸는 평화

초등부 우수상

박세현

광양용강초교 6년



세력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끼리 남북으로 나뉘어 6.25전쟁이 끝난 후 우리에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통일이다.

과제는 부담감과 압박감을 주지만 빨리 해결할수록 좋은 게 과제이다. 과정은 힘들겠지만 힘든 과정을 거쳐야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꿈꾸는 평화는 평화통일이다.

현재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도 평화통일을 꿈꾸었다. 평화통일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최근 들어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잘살아야 한다. 함께 잘 살자 나라들로부터 우리나라의 평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최근 9월 18일에는 북한 평양에서 남북 정상 간의 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2000년 김대중,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졌다. TV를 통해 백두산 천지를 올라가는 장면에서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대통령이 꿈꾸는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민족은 전쟁의 아픔을 많이 겪은 민족이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잠시, 또 다시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미국과 소련 두

가 되었다.

최근 9월 18일에는 북한 평양에서 남북 정상 간의 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2000년 김대중,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졌다. TV를 통해 백두산 천지를 올라가는 장면에서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대통령이 꿈꾸는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민족은 전쟁의 아픔을 많이 겪은 민족이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잠시, 또 다시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미국과 소련 두

가 되었다.

최근 9월 18일에는 북한 평양에서 남북 정상 간의 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2000년 김대중,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졌다. TV를 통해 백두산 천지를 올라가는 장면에서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대통령이 꿈꾸는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민족은 전쟁의 아픔을 많이 겪은 민족이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잠시, 또 다시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미국과 소련 두

가 되었다.

최근 9월 18일에는 북한 평양에서 남북 정상 간의 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2000년 김대중,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졌다. TV를 통해 백두산 천지를 올라가는 장면에서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대통령이 꿈꾸는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민족은 전쟁의 아픔을 많이 겪은 민족이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잠시, 또 다시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미국과 소련 두

가 되었다.

최근 9월 18일에는 북한 평양에서 남북 정상 간의 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2000년 김대중,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졌다. TV를 통해 백두산 천지를 올라가는 장면에서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대통령이 꿈꾸는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민족은 전쟁의 아픔을 많이 겪은 민족이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잠시, 또 다시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미국과 소련 두

가 되었다.

최근 9월 18일에는 북한 평양에서 남북 정상 간의 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2000년 김대중,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졌다. TV를 통해 백두산 천지를 올라가는 장면에서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대통령이 꿈꾸는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민족은 전쟁의 아픔을 많이 겪은 민족이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잠시, 또 다시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미국과 소련 두

가 되었다.

최근 9월 18일에는 북한 평양에서 남북 정상 간의 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2000년 김대중,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졌다. TV를 통해 백두산 천지를 올라가는 장면에서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대통령이 꿈꾸는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민족은 전쟁의 아픔을 많이 겪은 민족이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잠시, 또 다시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미국과 소련 두

가 되었다.

최근 9월 18일에는 북한 평양에서 남북 정상 간의 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2000년 김대중,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졌다. TV를 통해 백두산 천지를 올라가는 장면에서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대통령이 꿈꾸는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민족은 전쟁의 아픔을 많이 겪은 민족이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잠시, 또 다시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미국과 소련 두

가 되었다.

최근 9월 18일에는 북한 평양에서 남북 정상 간의 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2000년 김대중,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졌다. TV를 통해 백두산 천지를 올라가는 장면에서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대통령이 꿈꾸는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민족은 전쟁의 아픔을 많이 겪은 민족이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잠시, 또 다시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미국과 소련 두

가 되었다.

최근 9월 18일에는 북한 평양에서 남북 정상 간의 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2000년 김대중,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졌다. TV를 통해 백두산 천지를 올라가는 장면에서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대통령이 꿈꾸는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민족은 전쟁의 아픔을 많이 겪은 민족이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잠시, 또 다시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미국과 소련 두



소쇄원을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체험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오는 28일부터 담빛예술창고서 '사유의 정원 소쇄원을 거닐다' 전

우리나라 대표 별서정원이자 누정 문화의 산실인 담양 소쇄원을 소재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개발되어 전시된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담양 담빛예술창고에서 '남도문예르네상스 인터랙티브 콘텐츠전: 사유(思惟)의 정원, 소쇄원을 거닐다' 전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소쇄의 시(時)'와 '뜻으로 이룬 공간, 소쇄원' 등 2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소쇄의 시(時)'는 소쇄원 사계 풍광과 소쇄원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해서 김인후 선생의 소쇄원 48영을 사실적 3D그래픽으로 구현한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다. 전시콘텐츠 앞에 서면 신비로운 음악과 함께 계절별로 변화하는 소쇄원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뜻으로 이룬 공간, 소쇄원'은 소쇄

원의 장경자 양산보와 함께 소쇄원을 걸어보는 가상현실 콘텐츠로 이뤄졌다. HMD 헤드셋을 쓰고 양산보와 함께 소쇄원 곳곳을 거닐어보면 자연과 함께 학문을 고민했던 선비들의 자취와 숨결을 느껴볼 수 있다.

또한 전시관 한 칸에서는 송창근 사진작가의 '소쇄원 48영' 사진전도 함께 진행돼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조선 선비문화의 산실인 별서정원 소쇄원이 품은 가치와 의미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재조명했다"며, "전시관을 찾아 새로운 방식으로 소쇄원을 체험하고, 과거 선비들의 풍류와 정취를 한껏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 콘텐츠는 전남도 직접시책인 '남도문예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추진중인 '전남 3대 별서정원 콘텐츠 개발 및 보급사업'을 통해 개발됐다. 올해에도 소쇄원을 비롯해 강진 백운동 정원과 완도 부용동정원 등과 연계한 별서정원 콘텐츠가 추가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시·노래·유머 있는 양석승 힐링콘서트

오늘 천혜경로원서

한국감성 충전 & 웃음 치료 연구소 양석승 소장은 25일 '제 25회 시와 노래와 유머가 넘치는 양석승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천혜경로원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공연으로, 금은희 한국노래강사협회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금 원장의 짙레꽃과 디스코메들리에 이어 양 소장은 한계령을 위한 연가를 낭송하고 사랑의 미로, 노래는 나의 인생, 섬마을 선생님, 똥배아가씨, 바람, 아모르 파티 등의 노래로 유머와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총장축제 힐링 고고장구 장려상 및 광주시 동구가족음악제 우수상을 수상한 가수 김희순 씨가 진도배기와 아리랑 연가, 진도아리랑을 장구를 치며 노래한다.

마지막은 전 출연진이 내 나이가 어머서를 부르며 콘서트를 마무리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25일 오후 2시 30분 천혜경로원에서 열린다. /이보람 기자



양석승 소장